

이 콘텐츠는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.
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,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내신형 문제

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㉠ 달이 어째서

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

무량수불 전에

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

서원(誓願)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

두 손 곧추 모아

원왕생 원왕생

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

[A] 아아, 이 몸 남겨 두고

사십팔대원 이루실까

月下伊底亦

西方念丁去賜里遣

無量壽佛前乃

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

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

兩手集刀花乎白良

願往生願往生

慕人有如白遣賜立

阿邪此身遣也置遣

四十八大願成遣賜去

1. 이 노래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연정가 ② 충의가 ③ 기원가 ④ 추도가 ⑤ 주술가

2.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신이 전달하려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표현을 통해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.
② 불교적 내세 사상이 작품의 근원이다.
③ 작품 전체를 '4-4-2'구의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.
④ 대화체를 통하여 달에게 자신의 소망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.
⑤ 기원의 대상과 기원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.

3. [A]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- ① 낙구 또는 격구라고 부른다.
② 10구체 향가의 특징을 보여 준다.
③ 직설적인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.
④ 정서의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상이 완결되는 부분이다.
⑤ 감탄사로 시작하여 고려 가요 및 시조의 중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.

4.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.
②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뜻을 강조하였다.
③ 10구체 향가의 일반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.
④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여 소망을 간접하게 표현하였다.
⑤ 화자의 청원 대상과 청원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.

5.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- ① 불교적 사상이 배경이 되고 있다.
② 대화체를 통해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.
③ 자연물에 의탁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④ 상징과 비유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.
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.

6. [A]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사뇌가의 특징을 보여 준다.
② 설의법으로 강한 기원을 나타낸다.
③ 내면적으로는 위협 내지 명령이다.
④ 아미타불의 중생 제도의 서원을 상기시키고 있다.
⑤ 간접적인 기원으로 절대자에 대한 외경을 나타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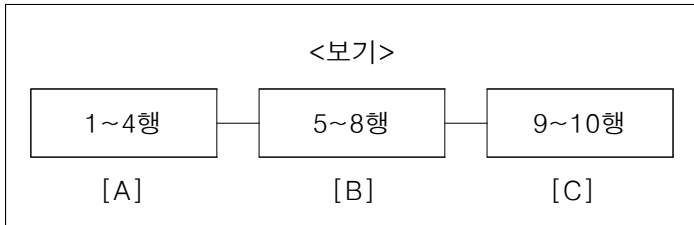
7.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 있다.
- ②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다.
- ③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.
- ④ 불합리한 운명과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.
- ⑤ 현실과의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.

8. 이 노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‘달’은 화자가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길 바라는 존재이다.
- ② 화자는 ‘무량수불’을 염원 실현의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다.
- ③ ‘두 손 곧추 모아’에는 화자의 소망을 경건하게 아뢰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.
- ④ ‘원왕생 원왕생’이라고 하며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.
- ⑤ ‘사십팔대원 이루실까.’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절대자가 화자의 소망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.

9. 이 글의 시상 전개 과정을 <보기>와 같이 정리한 후, 학생들이 나눈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

- ① [A]와 [B]는 동일 시어인 ‘사뢰소서’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청원을 강조하고 있어.
- ② [A]에서는 대상의 역할만을 언급했다면 [B]에서는 전달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.
- ③ [A]와 [B]에서는 ‘무량수불(無量壽佛)’과 ‘부처님’이 지시하는 대상이 같고, [B]와 [C]에서는 ‘그리는 이’와 ‘이 몸’이 지시하는 대상이 같아.
- ④ [A]와 [B]에서 드러난 화자의 적극적 태도는 [C]에서 소극적 태도로 전환되고 있어.
- ⑤ [C]에서는 감탄사를 활용해서 [A]와 [B]의 시상을 집약시키고 있어.

10. 이 노래의 갈래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였다.
- ② 형식을 중국 문학에서 빌려 왔다.
- ③ 서민층의 문학 참여가 두드러졌다.
- ④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.
- ⑤ 삼국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서사 문학이다.

11. 이 노래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1~2구: 이별한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 달라고 달에게 부탁하고 있다.
- ② 3~4구: 달에게 무량수불 앞에 직접 가겠다고 하고 있다.
- ③ 5~6구: 두 손을 모아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.
- ④ 7~8구: 화자 자신의 극락왕생에 대한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.
- ⑤ 9~10구: 자신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.

12. 이 노래에서 ‘달’이 갖는 의미 또는 기능을 가장 잘 말한 것은?

- ① 만물을 환히 비춰 주는 달
- ② 화자의 그리움을 돋우는 달
- ③ 밝고 동적인 이미지를 지닌 달
- ④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게 하는 달
- ⑤ 화자의 염원을 대상에게 전달해 주는 달

13. 이 노래에서 ‘달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기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.
- ② 불교적 신앙심이 내포되어 있다.
- ③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들어주는 대상이 되고 있다.
- ④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과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.
- ⑤ 일상적 삶과 구별되는 이상적인 동경의 세계를 상징한다.

14. ㉠에 담겨 있는 화자의 심경을 가장 잘 말한 것은?

- ① 소망과 기대감
- ② 환희와 만족감
- ③ 경탄과 호기심
- ④ 후회와 자책감
- ⑤ 불안과 실망감

수능형 문제

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㉠달이 어째서
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
무량수불 전에
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
서원(誓願) 깊은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
두 손 곧추 모아
원왕생 원왕생
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
㉡아아, 이 몸 남겨 두고
사십팔대원 이루실까

月下伊底亦
西方念丁去賜里遣
無量壽佛前乃
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
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
兩手集刀花乎白良
願往生願往生
慕人有如白遣賜立
阿邪此身遣也置遣
四十八大願成遣賜去

1. 이 노래의 ‘달’과 <보기>의 ‘달’의 의미상 차이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.

<보기>

내 님물 그리수와 우니다니
산 접동새 난 이슥하오이다.
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아으
잔월효성(殘月曉星)이 아르시리이다.

- 이 노래의 ‘달’은 기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상이고, <보기>의 ‘달’은 시적 화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이다.
- 이 노래의 ‘달’은 화자에게 친근한 대상이고, <보기>의 ‘달’은 화자를 꾸짖는 존재이다.
- 이 노래의 ‘달’은 기원을 하는 대상이고, <보기>의 ‘달’은 시적 화자의 결백을 알아주는 존재이다.
- 이 노래의 ‘달’은 화자와 같은 처지이고, <보기>의 ‘달’은 시적 화자와 반대되는 처지이다.
- 이 노래의 ‘달’은 모든 것을 아는 신적인 존재이고, <보기>의 ‘달’은 화자가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대상이다.

2. 이 시와 <보기>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향단아 그넛줄을 밀어라./머언 바다로
배를 내어 밀 듯이,/향단아. <중략>
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/나를 밀어 올려 다오.
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.
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!//
서으로 가는 달같이/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.
<하략>

- 서정주, ‘추천사-춘향의 말1’

- 두 작품 모두 청자가 시 표면에 직접 등장하며, 대 화체가 사용되었다.
- 이 시와는 달리 <보기>에서는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난다.
- 이 시의 ‘달’과 <보기>의 ‘향단’은 현실과 이상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.
- 이 시의 ‘서방’과 <보기>의 ‘하늘’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.
- 이 시의 화자는 소원을 빌고만 있지만, <보기>에서는 스스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.

3.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대사 중, ㉠와 발상 및 표현이 가장 유사한 것은?

<보기>

태형 : 선경아. 나 할 말이 있어. 많이 고민해봤는데,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. 정말 미안해.
선경 : ()

- 두 손 모아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거야.
- 내가 이렇게 미안해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원망하겠니?
- 내가 나랑 헤어지고 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?
- 날 이렇게 버리고 가면 너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야.
- 너 예전에 나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걸 잊진 않았지?

4. <보기>를 바탕으로 이 시의 특징을 서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신라인들이 즐겨 불렀던 향가는 주술적 노래와 불교적 기원을 담은 노래, 어떤 대상을 찬양하거나 추모하는 노래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, 형식도 다양하다. 현재 전승되는 작품들을 민요적 속성이 짙은 4구체와 과도기적인 형태로 보이는 8구체,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 10구체로 나눌 수 있다.

- ① 이 시는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요적 속성이 짙다.
- ② 이 시는 어떤 대상을 추모하는 노래이다.
- ③ 내용상으로는 불교적 기원을 담은 노래이며, 형식적으로는 향가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는 10구체 형식을 따르고 있다.
- ④ 과도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.
- ⑤ 8구체이기 때문에 사되가라고도 부른다.

5. 이 노래의 ㉠과 <보기>의 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㉠돌하 노피곰 도드샤
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
어기야 어강도리
아으 다롱디리
저재 녀러신고요
어기야 존 디롤 드디올세라
어기야 어강도리
어느이다 노코시라
어기야 내 가는 디 점그롤세라
어기야 어강도리
아으 다롱디리

- 정읍사

- ① ㉠과 ㉡은 모두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소재이다.
- ② ㉠과 달리 ㉡은 화자의 갈등을 초래하는 존재이다.
- ③ ㉡과 달리 ㉠은 화자의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자연물이다.
- ④ ㉠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, ㉡은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.
- ⑤ ㉠은 기원을 전달해 주는 대상이고, ㉡은 기원을 이루어 주는 대상이다.

6. 이 노래의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장 유사한 태도가 나타난 것은?

①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/ 나를 밀어 올려다오.
/ 채색(彩色)한 구름 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. / 이 올림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!

- 서정주, '추천사'

②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/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. /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/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네.

- 신경림, '목계 장터'

③ 바람 이불처럼 덮고 / 화장(化粧)도 해탈(解脫)도 없이 /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/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 다오.

- 황동규, '풍장(風葬) 1'

④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/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/ 오는 봄엔 분수(噴水)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/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.

- 신석정, '꽃덤불'

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(碑)스돌을 세우지 말라. /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. /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.

- 함형수, '해바라기의 비명(碑銘)'

7. <보기>의 화자가 시간이 흐른 뒤 이 노래를 불렀다고 가정하고, 그동안의 심적 변화를 회고록 형식으로 쓴다고 할 때, 그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?
달 비친 사창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.
꿈속의 녀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,
문 앞의 돌길에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걸.

- 이옥봉 <몽혼>

- ① 그를 만날 때부터 이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이별은 언제나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.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- ②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수많은 밤들을 그 사람 생각에 뜬눈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. 그런 고통 속을 헤매던 나는 어느 날 절대자에게 귀의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- ③ 나는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별의 아픔을 사랑의 완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.
- ④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헤어져야 하고,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무상감을 참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. 어차피 덧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면, 평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생각했습니다.
- ⑤ 그 사람과의 사별은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.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도 따라 죽어도 싶었습니다. 하지만 비록 이승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저승에서는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. 그 날을 위해 도를 닦으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.

사용설명서 변형 문제

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달이 어째서
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
무량수불 전에
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
서원(誓願)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
㉠두 손 곧추 모아
㉡원왕생 원왕생
㉢그리는 이 있다 ㉣사뢰소서
아아, 이 몸 남겨 두고
㉤사십팔대원 이루실까

月下伊底亦
西方念丁去賜里遣
無量壽佛前乃
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
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
兩手集刀花乎白良
願往生願往生
慕人有如白遣賜立
阿邪此身遺也置遣
四十八大願成遣賜去

1. 다음 중 시어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.

- ① 달 : 기원의 주체, 화자와 무량수불을 이어 주는 매개체이다.
- ② 서방 : 서쪽 지역. 현실 세계에 속한다.
- ③ 무량수불 :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불. 궁극적 기원의 대상
- ④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: 왕생하려는 자신의 소망을 무량수불에게 말해 달라는 것
- ⑤ 서원 깊으신 부처님 : 부처님을 찬양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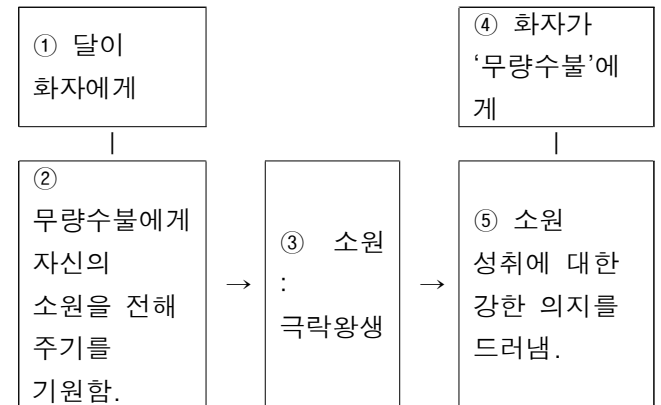
2. 다음 중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.

- ① 분연체로 각 연마다 후렴구를 지니고 있다.
- ② 작품의 시적 화자는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.
- ③ 대칭 구조를 지니고 있다.
- ④ 상황을 희화화하여 웃음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.
- ⑤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노래이다.

3. 다음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- ① ㉠ : 화자의 경건한 자세를 나타낸다.
- ② ㉡ : 장수를 빌고 있다.
- ③ ㉢ : 화자를 나타낸다.
- ④ ㉣ : 주체는 ‘달’이다.
- ⑤ ㉤ : 아미타불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빌었던 48가지 큰 소원이다.

4. 다음은 화자의 태도를 정리한 내용이다. 이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

5. 위 작품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- ① 1-4구는 무량수불에게 소원을 전해 주기를 달에게 부탁하고 있다.
- ② 5-8구는 부처에게 왕생을 위해 열심히 도를 닦을 것이라는 자신의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.
- ③ 9-10구는 무량수불에게 서원의 실행을 당부하고 있다.
- ④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- ⑤ 화자의 소망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호소하고 있다.

정답 및 해설

내신형 문제

1. <답> ③

이 노래는 서방 정토에서 왕생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달에 의탁하여 호소하고 있는 기원의 노래이다.

2. <답> ①

이 노래는 달과 대화하듯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 전달하려는 의도와 정반대의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없다.

3. <답> ③

이 부분은 직설법이 아닌 설의법이 사용되었다.

4. <답> ④

여성적 어조를 찾아볼 수 없다. 오히려 낙구에서는 강하게 자신의 소원을 표출하고 있다.

5. <답> ⑤

생동감 있는 이미지와 내용이 아니다. 화자의 소망을 기원하는 경건한 내용이다.

6. <답> ⑤

10구체 향가의 낙구에 해당하는 것으로, 감탄사로 시작하여 '이루실까'로 끝나는 설의법으로 표현되어 있다. 내용으로는 마지막 청원 및 찬탄으로 청원의 심화와 확대를 노래하고 있다. 내면적으로는 강한 명령법과 접맥되는 위협적인 요소로 주술성을 띠고 있을 뿐 간접적인 기원으로 절대자에 대한 외경심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.

7. <답> ①

화자는 '서방' 세계에 있는 무량수불에게 '원왕생'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초월 세계에 열망을 가지고 있다.

8. <답> ①

최종 소원은 달이 아닌 무량수불이 들어줄 수 있다.

9. <답> ④

점점 더 적극적 태도로 바뀌고 있다.

10. <답> ④

이 작품은 향찰로 표기된 신라 시대의 노래이며, 이를 해독한 것이 현재 읽히고 있다. 우리글이 없었던 시절,

한자의 음과 뜻을 각각 나누어 빌려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향찰이다.

① 10구체의 비교적 절제된 형식을 사용하였다.

② 당시 중국은 한시가 지배적 서정 문학이었으며, 한시의 오언절구, 칠언율시 등의 형식은 향가와 크게 관련이 없다.

③ 서민층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작품을 창작하고 전승시키는 데 제한이 있었다.

⑤ 삼국 시대 말엽에 발생하여 통일 신라 시기에 주로 불린 서정 문학이다.

11. <답> ④

이 작품은 화자가 죽어서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현세와 서방 정토를 잇는 달에게 기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. '원왕생(願往生)'은 '극락왕생을 원함'이라는 뜻으로 그 소망을 달에게 실어 서방 정토에 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.

① 이별한 임이 아닌 무량수불에게 자신의 소망을 전달해 달라고 하고 있다.

② 직접 무량수불 앞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량수불에게 자신의 소망을 전해 달라는 내용이다.

③ 화자 자신의 극락왕생을 소망하는 것으로, 부처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.

⑤ 화자 자신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, 아미타불이 중생 구제를 위해 마음먹었던 48가지 서원을 이루지 못한 셈이니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 달라는 것을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.

12. <답> ⑤

여기서 '달'은 화자(청원자)와 아미타불을 중재하는 역할, 즉 화자의 염원을 대상에게 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.

13. <답> ⑤

시적 화자는 '달'을 통해 자신의 불교적 신앙심이 부처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하고 있다.

14. <답> ①

달에게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자신의 소원을 아미타불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.

수능형 문제

1. <답> ③

이 노래의 ‘달’은 화자의 원을 무량수불에게 전해줄 수 있다.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소원을 전달해줄기를 기원하고 있다. <보기>의 ‘달’은 화자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존재이다.

2. <답> ③

이 노래의 ‘달’은 지상과 이상 세계를 이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 화자의 소원을 듣는 존재이다. <보기>의 ‘향단’은 ‘달’처럼 화자의 소원을 듣는 청자이지만, 지상과 이상 세계를 이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.

3. <답> ③

설의법이 사용되었고,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내용이 같다.

4. <답> ③

10줄로 되어 있으며, 불교의 높은 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구체 향가이며 사뇌가이다.

5. <답> ⑤

㉠은 화자의 소망을 들어서 전달해 주는 존재이고, ㉡은 화자의 소망을 직접 이루어 주는 존재이다.

6. <답> ①

현실 세계보다도 이상 세계를 지행한다는 점에서 서정주의 추천사와 가장 비슷하다.

7. <답> ②

시적 화자의 심적 변화를 정리하면, 임을 그리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눈물짓던 화자는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한다. 이런 세속적인 고통 때문에 번민하던 화자는 현실에 얽매어 있는 한 이 같은 번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, 불교에 귀의하여 극락왕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.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님에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부처님에게 전해 달라고 기원한다.

사용설명서 변형 문제

1. <답> ①, ②

- ① 기원의 주체가 아닌 기원의 대상이다.
- ② 서방은 현실 세계가 아닌 극락세계이다.

2. <답> ⑤

죽어서 극락왕생한다는 불교의 내세 사상이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위 작품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노래이다.

3. <답> ②

장수가 아닌 왕생, 즉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.

4. <답> ①

‘화자가 달에게’로 고쳐야 한다.

5. <답> ②

도를 닦을 의지라기보다도 간절히 왕생을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.